

한국불교의 미래가 걸려있는 젊은불자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군포교. 그러나 군부대 포교 현실은 대단히 열악하다. 7백여곳에 달하는 인가·비인가 군법당이 전국에 신재해 있으나, 군법당이 배척된 곳은 1백여 곳에 불과하다. 실패한 곳은 사단급 부대에도 군법당이 없다. 이들 군법당은 인건 사찰이나 포교사, 지원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 법회나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포교 지원단체로는 군포교진흥회, 조계종 포교사단, 군포교어머니회, 향지모임, 선재사랑회, 심우회, 충북예비역불자회, 군순단후원회 등 10여 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들은 자체 회비와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포교비용을 마련, 열악한 군포교 현장을 돕고 있다. 자살한 아버지로, 때로는 낙담한 어머니로 군포교자들의 불심을 북돋는 이들의 활동에는 눈물겨운 자기헌신과 희생이 수반된다.

전법제일 부부나 존자의 전법행을 떠오르게 하는 포교사단 군포교특별위원회 한연수 위원장과 심우회 채희주 재무, 선재사랑회 정순진 회장의 군포교 이야기를 담는다.



△군법당이 배척된 군법당은 전국 군법당의 7분의 1 수준인 1백여곳에 불과하지만, 군포교자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돕는, 뜻있는 포교사들이 있기에 군포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연수 포교사단 군포교특별위원회장이 백마부대 군포교자들에게 불을 올리고 있다.

군포교 어려운점

“재정적인 후원모임 많았으면” 비디오등 전자제품 지원 절실

군포교의 어려움은 어떤 점이 있을까. 군포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답은 간단하다. 스님과 불자들의 ‘이기적이며’ 고루한 생각이 있다.

선재사랑회 정순진 회장은 “일부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군포교 지원활동을 못하게 한다”며 “군포교를 시작하면 신도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군포교를 후원해야 할 사찰에서 오히려 신도들의 포교를 막고 있다는 것. 심우회 채희주 재무도 “신도들이 군포교 하는데 도움주기를 꺼리는 스님들도 꽤 있다”며 “군포교에 나서면 사찰 불사에 나서지 않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연수 포교사는 “재정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껏 포교활동을 못하는 포교사들이 많다”며 “많은 후원모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 지역의 경우 외부 지원이 거의 없어 자체법회로 이뤄지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군법당에 비디오, 오디오 시설이 없어 큰스님 법문 등의 포교테이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제품을 버리지 말고 군법당에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족품 떠난 허전함 ‘부루나들’ 불법으로 채워줘요”



△군정병들에게 나눠줄 염주를 정성스럽게 고르고 있는 채희주 심우회 재무.

이다. 25사단 71연대 3대대 호국하나로법당은 한 위원장이 군포교의 첫발을 내디딘 곳으로 첫 법회를 열었을때 3명만이 법당을 찾았다. 한 위원장이 법회 활성화를 위해 온 열정을 쏟은 결과 현재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1백여명으로 늘어 모범적인 군법당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비좁고 노후한 시설의 신축불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변으로부터 많은 격려와 찬사를 받기도 했다.

한 위원장의 군포교는 그만의 비결이 있다. 일산 보현가족과 서울 목동 들들회, 서울 은평구 진관사, 진관사 아버지회, 하남 정심사 신도회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이들의 후원은 한 위원장이 펼친 포교활동의 견인차가 됐다.

한 위원장은 보현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어 사무실을 개업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도 그는 보현대리점을 고집한다. 군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종교의 물량공세에 현혹되지 않고 먹거리도 변변치 않은 법당을 찾는 군포교자들을 의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변이다.

98년부터 15개 군법당 지원

말단 대대법회 활성화 주력

일산 보현가족·목동 들들회등

후원단체들 뒷받침 큰 도움

삼풍백화점 사고후 결심

친한 도반들과 봉사대 조직

96년 수재당한 군법당 후원

회비·바자수익금으로 비용

92년 철원 심원사에서 서원

만나는 장병마다 염주 선물

신병교육대 중심 포교활동

“전역후 사찰과 연계 필요”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활동했던 40여 명의 봉사자들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자는데 뜻을 함께 하고 심우회를 결성했다.

변변한 사무실 하나 없이 거리에서 모임을 갖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던 심우회는 96년 수재당한 경기도 연천의 군법당에 대한 본지 기사를 보고 군법당 후원을 시작했다. 군법당 불사, 전동장병 헌도제 불행, 대종공양 등으로 많은 재정이 필요했던 심우회는 회비만으로 충당이 되지 않아 컵등 보시, 바자회 개

최 등 수익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사장이 이렇다보니 재무를 맡고 있는 채희주 보살이 가장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회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삼풍사고 이후 꾸준히 군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채 재무는 군포교 보다 더한 수행은 없다고 말한다. 군포교를 시작한 이후 자신의 변화를 들여다보면서 기쁜 마음이 절로 난다.

“군포교자들이 열심히 수행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채희주 재무는 “어머니의 품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을 장병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바람을 털어냈다. 회원참여 02)578-2525

■선재사랑회 정순진 회장

군포교 활동을 꾸준히 펼치던 선재사랑회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정순진(56) 법명 ‘원만성’ 회장은 10년동안 선재사랑회를 이끌어오고 있는 일꾼이다.

정 회장은 92년 철원 심원사 법회에 참석했다가 법회에 동참한 군장병들을 보고 군포교를 결심하게 됐다. 법당 공간이 좁



△정순진 선재사랑회 회장(가운데)이 호국원광사에서 이광노 고문과 군포교자들의 도움을 받아 연등을 걸고 있다.

군법당 700여곳, 법사 상주 100곳 뿐

■포교사단 한연수 군포교특별위원장

조계종 포교사단은 군포교를 위해 군포교특별위원회를 두고 전국 73개법당의 법회 및 불사를 지원하고 있다. 군포교는 포교사단과 서울·경기포교사단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핵심분야. 법명이 ‘방방’인 한연수(49) 포교사는 군법당을 지원하는 군포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포교사단의 간판스타다. 그가 펼치고 있는 활동과 역량이 포교사단의 수많은 포교사들에 비교하더라도 단연 돋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군포교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도 군포교사들의 법당 권선을 계속하는 등 헌신적인 활동으로 모범이 되어왔다.

98년부터 군포교 활동을 시작한 한 위원장은 법회 진행이 어려운 15곳의 군법당을 지원해 왔다. 군법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말단 대대법당이 대부분

■심우회 채희주 재무

기도는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현장에서 펼치는 포교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군포교자들은 불자들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포교지원단체인 심우회(회장 이춘삼)의 채희주(61) 법명 ‘원만성’ 재무가 평소 강조하는 말이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전까지 평범한 불자였던 채 재무는 95년 사고 당시 사고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단체임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현장을 지켜보던 이들이 “불교는 왜 봉사활동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채 재무는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도반들과 봉사단을 조직, 사고

여건 열악하지만 헌신과 희생으로 전법

아빠에서 후그리고 앉아 법회를 보는 젊은 장병들의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미래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이때부터 정 회장은 가방에 합장주를 갖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군장병들에게 나눠주고, 군포교 활동을 함께 할 불자들을 모으는 등 군포교에 전념했다.

선재사랑회는 신병교육대대를 중심으로 군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 회장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크고 종교가 결정되는 곳이 신교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장 직접적인 포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종교에서도 신교대에 역점을 두고 있어 중요성이 크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정 회장은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는 선재사랑회는 그동안 1사단, 2사단, 26사단 등 법회를 지원해 왔다. 사장이 이렇다보니 정 회장도 지금까지 다녀온

군법당 수가 부지기수다. 많은 법당을 돌아본 만큼 정 회장은 군법당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

정 회장은 “군포교를 한다는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스님들이 너무도 많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1사단 1군법당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군포교자들이 전역후 다닐 수 있는 사찰과 연결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9년부터 가정불단을 모시고 예불과 금강경 강독을 생활화하고 있는 정 회장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군포교를 하겠다고 서원했다. 이제 10년동안 맡아온 선재사랑회 회장직을 놓고 평회원으로 돌아가 생명이 다할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이 정순진 회장의 생각이다.

글=박봉명 기자 bypark@buddhaha.com
사진=고명배 기자 yjcp@buddhah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간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래전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선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상한 시대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임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선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선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물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선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령나루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모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백가 약이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